

■ 주간 증시 포커스

글로벌 증시 호조·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 가능성

제약·바이오·가상화폐 종목 주목

미국을 대표하는 다우지수가 2만5000선을 돌파하고 3대지수인 다우와 나스닥, S&P500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글로벌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다. 12월 미국기준금리가 인상되고 3월 금리인상 가능성도 높아졌지만 12월 FOMC 의사록을 통해 연준의 미국 경기 낙관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12월 ISM제조업지수가 기대 이상의 호조를 보이면서 2018년 미국 경기에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를 인하 등 파격적인 감세와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주가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금리인상에도 달러가 약세양상을 보이고 유가를 중심으로 원자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머징국가지수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증시도 글로벌증시의 훈풍과 새해들어 외국인 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며 코스피수는 2500선에 근접했고 코스닥지수는 지난주 3.7% 급등하며 10년 7개월 만에 820선을 회복하였다.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7500억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은 지난주 4일간 1조2442억원을 순매수 했고 코스닥시장에서도 3282억원 순매수가 지속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국내증시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가 중심이 되었다면 2018년에는 지난해 4분기부터 변화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코스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12월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1월 중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혁신성장과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다방면의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은 연금금의 코스닥비중 확대 유도 정책일 것이다.

정부는 현재 코스피지수 중심의 연금급 성과평가방식에서 코스닥을 포함한 성과평가(벤처마크지수 신설 등)방식 변경과 함께 중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비중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참여자들이 체감하는 정책 강도는 연금금의 코스닥 보유 비율에 대한 수치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여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한이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반주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2018(1월 9~12일)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1월 8일)가 예정되어 있고 이르면 주 후반 코스닥활성화정책 발표 가능성도 있어 코스닥 및 중소형주 모멘텀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제약·바이오 및 가상화폐 등 추세적 상승이 유지되는 종목에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단기간 상승폭이 컸고 정부정책발표가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체질 강화를 중심으로 발표될 경우 단기 조정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책 발표시점 및 내용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 지난해 농식품 수출 68억2870만달러 역대 최대

라면 등 가공식품 인기 전년보다 5.6% 증가

김 효자 노릇 톡톡 수산물 수출도 23억달러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김이 수출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면서 국내 수산물 수출도 크게 증가했다. 농식품과 수산물 모두 지난해 수출 호조를 보이며 역대급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전년보다 5.6% 증가한 68억287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다.

또 수산물 수출액도 전년 21억3000만 달러 대비 약 9.5% 증가한 23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이 역시 지난 2012년 23억6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2번째 기록으로, 수산물 수출액이 23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

농식품의 경우 품목별로는 가공식품 수출액이 57억3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31.2% 급증한 3

억8100만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3억달러를 넘어섰다.

대중국 라면 수출액이 1억 달러를 처음 돌파하고 동남아 및 미국에서 한국 라면이 인기를 끈 점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은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대일본 수출은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13억1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4% 급증했다. 아세안 시장으로의 수출 실적도 전년 대비 9.3% 증가한 12억11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아세안 시장은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출 차질에도 라면, 딸기 등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일본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반면, 사드보복 여파 등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은 9억 8700만 달러에 그쳐 10.0% 감소했다.

수산물의 경우 과거 원료용 냉동수산물 형태로 수출이 이뤄지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수산가공품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김의 수출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김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45.3% 급증한 5억1000만 달러를 기록, 처음으로 수출 5억 달러를 달성했다.

일본, 중국, 미국 등 기존 주요 수출 상대국 외에 러시아가 2000만 달러로 317.7%나 급증했

며, 캐나다는 2000만 달러로 45.9% 늘었다. 호주도 1000만 달러를 돌파해 51.5% 증가하는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참치도 6억3000만 달러로 8.6% 늘었고, 이빨고기와 게도 각각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4.5%, 27.0%씩 늘어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오징어 수출은 전 세계적인 어획량 감소에 따른 재고 부족 등으로 전년 대비 30.9% 감소한 8000만 달러에 그쳤다.

특히, 베트남으로의 수출액이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하며 연간 1억 달러 이상 수출하는 국가가 5개국으로 늘어났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수출 상대국 숫자도 총 144개국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상위 3개국(일본·중국·미국)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전남지역본부에서는 지난 5일 담양지역 내 수박농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산자조직화 교육 및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 농협 전남본부, 담양서 수박농가 생산자조직화·재배기술 교육

전남농협이 올해 판매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첫발을 뗐다. 지역 농업인들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해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나갈 계획이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지난 5일 담양군 봉산농협 회의실에서 지역 내 수박 농가 80여명을 모아 생산자조직화 교육 및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산물유통 환경 변화 및 산지 대응전략과 연계한 농가조직화 필요성과 새정부 산지조직 육성 정책 방향 설명, 수박 재배 기술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농업인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가 조직화가 얼마나 중요한 지

를 새삼 깨달았다”며 “농가 조직화를 통한 산지교섭력을 강화하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박태선 본부장은 “생산자조직화는 판매사업 활력화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다”며 “올해 경제사업 활력화와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극대화, 국민의 농협 구원을 위해 전남농협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농협 광주본부, AI 확산 방지 방역현장 점검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지난 5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방역현장을 찾아가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현재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AI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서 전국적으로 현재 10건이 발생했으나 광주지역은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광주본부 관계자들은 광주지역 유입 차단방역을 위해 마련된 광산구 삼도동 거점소독시설현장을 방문해 방역활동에 참여하고 방역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농협은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범농협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구

성하는 등 긴급 특별비상방역대책에 나선 상태다.

농협 표준방역행동요령(SOP)에 따라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고, 농협 방역 앱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 전파, 농장 예찰 및 방역지도 등 방역활동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일수 본부장은 “철저한 방역실태 지도와 점검으로 광주가 AI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정책자금 6689억 용자 지원

### aT 광주전남본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윤용)는 7월 2018년도 정책자금을 용자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용자지원에는 농·어업인들의 소득증진과 농식품 및 수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지원규모는 6689억원이다.

지원금리는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5%·일반업체 3%)와 1월 기준 변동금리(1.08%~2.08%)로 사업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용자지원 신청은 식품원료매입자금,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수출용역) 등은 오는 26일까지다. 외식업체육성자금 등은 오는 4월 6일까지 aT광주전남지역본부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에서 내려받은 뒤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940-7018, 7022.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전남도, 불법 김양식 일제 단속

전남도가 불법 김 양식시설을 뿌리뽑기 위해 일제 정비와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고소득 품종인 김의 본격 생산시기를 맞아 불법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불법 김 양식시설 일제정비 및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김 수출이 5억 달러를 돌파하고 산지 물김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여수 초도, 고흥 시산도, 완도 외도도 등 일부 해역에서 무면허, 어장 이탈 등 불법 시설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전남은 김 주산지로, 전국 김 생산량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단속은 연안을 보유한 12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어업지도선 12척과 어장정화선 3척을 동원, 어선 등 선박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불법 양식시설에 대해 강제 철거 등 대집행을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                                                   |                                                           |                                                     |                                               |
|---------------------------------------------------|-----------------------------------------------------------|-----------------------------------------------------|-----------------------------------------------|
| <p>아모리이온</p> <p>브라+슈트+거들<br/>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p> | <p>아모리이온 롱바디</p> <p>브라+슈트+거들+레깅스<br/>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p> | <p>아실리 바디슈트</p> <p>블랙은사 바디슈트의<br/>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p> | <p>비비드 아모르</p> <p>러닝+팬츠<br/>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p> |
|---------------------------------------------------|-----------------------------------------------------------|-----------------------------------------------------|-----------------------------------------------|

대표전화 1588-2219